

**삼성전자-대구시-경북대 공동으로  
「모바일 R&D센터」건립**



「이태원 모바일 R&D 센터」

삼성전자가 광주지역의 광산업 육성지원에 이어 대구에도 국내 최고의 모바일 R&D 센터를 건립하며 대구, 경북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3월 29일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에서 대구시, 경북대와 함께「모바일 테크노빌딩 기공식」을 가졌다.

이 날 모바일R&D센터 기공식에는 조해병 대구광역시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 김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을 비롯해 등 30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였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시, 경북대와 함께 '모바일 테크노 빌딩

건립 및 IT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대구시, 경북대는 2007년 초까지 경북대학교 내에 연면적 4,000여평,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규모의 모바일테크노빌딩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 곳에는 모바일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종합 모바일 R&D센터로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 디스플레이 글로벌 매출 10조 달성**



LG전자 DD사업본부가 연간 매출액 10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DD(디지털디스플레이)사업본부는 4월 4일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간 글로벌 매출 10조원 달성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또

2010년까지 디스플레이 매출 200억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DD사업본부는 해외 생산법인·판매법인을 포함해 지난해 매출 10조 5백억 원을 달성했으며, TV 매출은 5조 4천억 원, 모니터 매출은 3조 4천억 원, PDP패널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1조 4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기념비 제막식에서 LG전자 DD사업본부장 윤상한(尹相漢) 부사장은 "올해는 LG전자 디스플레이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해"라면서 "2010년까지 디지털TV 매출 100억불, 디스플레이 매출 200억 불을 목표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LG전자 디지털디스플레이 사업본부는 TV와 모니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사업부, PDP모듈을 생산하는 PDP사업부, OLED사업 팀이 구미에 있고, 레코딩 미디어(Recording Media) 등을 생산하는 RMC사업부는 청주에 위치해 있다.

LG전자는 지난 95년 최초로 TV 연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1년에 2조 원, 2002년 3조원을 차례로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 No | 제목                              | 일자         |
|----|---------------------------------|------------|
| 1  | 삼성전자 세계최초「UMTS 미디어플로폰」시연 성공     | 2006.04.06 |
| 2  | 삼성전자, 'CTIA 2006'서 첨단 기술력 과시    | 2006.04.05 |
| 3  | 삼성전자, 70나노 원반드 본격 양산            | 2006.04.05 |
| 4  | 삼성전자, '하우젠 에어컨 보상교환 대축제' 실시     | 2006.04.03 |
| 5  | 삼성전자, 필리핀서 3년 연속 최우수 수출업체 선정    | 2006.04.01 |
| 6  | 삼성전자 초슬림폰 앞세워 동남아 휴대폰 시장 공략 본격화 | 2006.03.29 |
| 7  | 삼성전자, 기업용 레이저프린터 3개 모델 출시       | 2006.03.28 |
| 8  | 삼성전자 청각장애 청소년에 삼성휴대폰 기증         | 2006.03.24 |
| 9  | 삼성전자 LCD, 2월 실적 전분야 1위          | 2006.03.23 |
| 10 | 삼성전자, 국내 최대 규모 전자전문 쇼핑몰 개장      | 2006.03.22 |
| 11 | 삼성 모니터, 미국 대륙 전역에 대량 공급 계약 체결   | 2006.03.21 |
| 12 | 삼성 모니터, 금융권 특화 모델로 금융시장 공략      | 2006.03.17 |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 No | 제목                                 | 일자         |
|----|------------------------------------|------------|
| 1  | LG전자, '디즈니 모바일폰'으로 북미 Family폰 시장.. | 2006.04.07 |
| 2  | LG전자, 美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CTIA 와이어리스..    | 2006.04.05 |
| 3  | 김영수 LG전자 부회장,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은 국내..   | 2006.04.03 |
| 4  | LG전자, 전국 5개 도시서 신입사원 직무적성검사 동시..   | 2006.04.03 |
| 5  | LG전자, TV사업 40년 누적 TV생산 2억대 돌파      | 2006.03.31 |
| 6  | 미 MIT대 학생들, "LG 타임머신 PDP TV 원더풀!!" | 2006.03.28 |
| 7  | LG전자, 벽걸이 프로젝터 해외서 '호평'            | 2006.03.28 |
| 8  | LG전자, '본격 로봇청소기 시대 연다'             | 2006.03.25 |
| 9  | LG전자, 프리미엄 홈시어터 시장 공략 강화           | 2006.03.24 |
| 10 | LG전자 WCDMA폰, 'U880'이태리서 인기 몰이      | 2006.03.24 |
| 11 | LG전자 'LG-VX6100'휴대폰, 태풍 속에서도 견재    | 2006.03.22 |
| 12 | LG전자 초슬림폰 '친환경 휴대폰' 인증 획득          | 2006.03.21 |

## 가온미디어,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인증획득

가온미디어는 노르웨이의 DNV인증원으로부터 셋톱박스 전제품에 대해 RoHS(전기 전자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2월 24일 공시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본격 시행되는 RoHS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DNV의 ISO1400 환경경영시스템 테스트 인증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제품의 검증과 RoHS 시스템 인증이 지원되기 때문에 완성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차 수출품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제한지침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인증획득으로 EU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영업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셋톱박스 업체 가운데 노르웨이 DNV 인증원에서 RoHS를 받은 것은 가온미디어가 처음이다.

## 삼성전기, 장애인 채용 적극 나서



삼성전기가 장애인고용 촉진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달 16일, 17일 대전과 부산의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공단이 추천한 61명에 대한 출장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5명이 최종 합격(합격률 57%)하여 4월4일(화)부터 정식 출근한다고 밝혔다.

입사를 지원한 장애인들은 삼성전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며 UK검사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입사 의지를 보였다.

이번에 입사하는 장애인들은 4월4일부터 2주간 입문교육을 받으며 교육기간 중 5일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개인별로 적소배치가 이루어 진다. 교육과정은 일반 신입 입문과정과 동일하며, 특히 "장애인 관점에서의 직장생활 마음가짐"이라는 강좌도 마련하여 이들의 회사생활을 도운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게 될 대전, 부산사업장에서는 일반 임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라는 특강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더불어 근무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지난 해 6월 노동부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맺은 후 한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과 함께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분석하고 근무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채용조건과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 PCB원조 대덕전자, 제2창업을 선언

국내 인쇄회로기판(PCB) 산업의 산증인인 대덕전자가 제2창업을 선언했다.

대덕전자는 다시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돌파구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결정했다. 많은 품목을 만들기보다는 가장 경쟁력있는 분야를 골라 집중 육성한다는 말이다. 김 사장은 이를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밝혔다. 반도체용 PCB는 최근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대덕전자도 반도체용 PCB를 만들어왔지만 주력은 통신장비 및 디스플레이용 다층 PCB였다.

반도체용 PCB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생산법인인 아페리오를 설립, 최신 생산체계를 갖췄다. 아페리오는 작년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목표는 50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할 계획이다.

자동차용 PCB는 대덕전자의 히든카드다. 자동차용 PCB는 국내 시장이 1,000억원 정도로 그동안 소규모 PCB 업체가 전담해 왔지만 최근 전장부품 사용비중이 급성장하면서 함께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덕전자는 자동차용 PCB 생산을 대덕필리핀과 병행할 방침이다. 대덕전자는 고기능 제품을 담당하고, 일반 자동차용 PCB는 대덕필리핀이 맡게 된다. 작년 대덕전자는 자동차용 PCB로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를 1,000억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미 지멘스VDO나 케피코, 현대오트넷 등 굵직한 국내외 고객과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무리없어 보인다.

대덕전자는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기획팀을 새로 만들었다. 과거에는 경영기획팀만 있었는데 4월 초 전략기획과 판매기획, 상품기획까지 아우르는 기획팀을 신설해 변화의 전진기지로 세웠다.

## LS전선, 연구개발 투자를 작년 대비 50% 이상 확대



LS전선이 올해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구자열 LS전선 부회장은 21일 안양공장에서 열린 'LS전선 연구개발 성과공유회'에서 "초전도케이블, 미래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차량용 핵심 부품과 정보통신 분야 등 미래 수종 사업 부분의 연구개발을 집중,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비 투자도 지난해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올린 팀과 개인을 선발,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렸다.

올해는 공조사업부의 '20마력급 가스히트 펌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고부가 특수동박 양산기술 △휴대폰용 B2B 커넥터 개발 △자기진단형 지중 전력케이블 개발 및 사업화 등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연구개발활동에 공헌한 사외인사에게 주는 '베스트 헬퍼' 상은 조재영 서울대 화학생물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구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술개발본부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기술 확보와 고부가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삼성SDI, PDP 4라인 7,300여억원 투자

삼성SDI는 급증하는 PDP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7,300억원을 투입, 오는 2007년 5월 양산을 목표로 PDP 4라인을 건설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4라인은 브라운관과 수동형(P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생산하는 울산광역시 사업장에 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1장의 유리기판에서 8장의 PDP를 생산하

는 8면취 공법이 적용되는 4기 라인의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300만장(42인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SDI의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기존 천안사업장 1·2·3라인과 4라인을 합칠 경우 약 732만대로 늘어난다.

삼성SDI는 4라인을 50인치 중심으로 강화해 기존 라인 대비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이고 42인치와 50인치의 풀 HD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등 PDP 프리미엄 라인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SDI는 또 유리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마스크 수를 기존 7장에서 2장으로 줄이는 최첨단 제조기법을 적용하고 스크린 마스크가 전혀 필요없는 PDP 라인으로 구현하는 등 공정 수와 제품생산 리드타임을 25% 단축, 원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3라인을 가동한 이후 후속 투자가 늦었던 이유에 대해 4라인에 적용할 신기술과 신공법을 개발, 철저한 검증을 통해 PDP 품질과 품위, 기술력, 원가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 KEC, 경북 구미에 MOS FAB 공장 준공



국내 최대의 개별반도체 업체인 KEC가 지

난 3월 3일 경북 구미공장에서 MOS FAB 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 본 공장은 지난 해 3월 4일 기공식을 거행한 이래 1년만에 준공되었다.

KEC는 1969년, 한국 전자산업의 태동지인 구미공단의 제1호 입주업체로, 지난 37년동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만 전념해 온 국내 최대의 개별반도체 전문업체이다. 특히, 소신호용 개별반도체(SSTR : Small Signal Transistor)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 공급 1위 업체이며, 2010년 내에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KEC는 21세기 비전인 '세계 초우량 반도체 전문회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SSTR과 더불어 KEC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Engine 으로 MOS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매출 목표를 1조원으로 하고 있다.

금번 준공된 MOS FAB 공장은 KEC가 지난 해 800억원을 투자해, 공장동 2,320평 (Clean Room 1,025평), 동력동 847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6인치 Wafer 월 5천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 공장은 4개월 간의 시험생산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KEC는 본 공장에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월 30,000매로 확대하고, 디자인룰(Design Rule)도 현재 0.5 $\mu$ m에서 0.3 $\mu$ m를 구현하는 공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신규 MOS FAB Line에서는 MOS-Discrete (LV-MOS, SS-MOS 등) 제품과 MOS-IC(Power Management IC, Battery Protector IC, Display Driver IC, 각종 Custom IC)를 개발하고, 생산하게 될 것이다.

**오토닉스,  
기술 교육관 3월 개관**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가 3월 1일 『오토닉스 기술 교육관』을 열고, 산업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한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토닉스는, 1년여의 준비 끝에 경기도 부천시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동사 영업본부 내에 기술 교육관을 개관한다.

동 교육관은 50여평의 공간에 약 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제작한 교육용 데모킷 등 실습 기자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청각 수업을 위한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 이론/실습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별도의 휴게실을 갖추는 등 수강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방 지역 수강 희망자를 위하여,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오토닉스 본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 교육은 산업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센서, 제어기기, 시스템 부문 등 총 44개 기종으로 구성된 각 부문 대표 제품군의 데모킷트를 이용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오토닉스 기술연구소의 연구원 및 기술진에 의해 기초 이론부터 제품의 원리 및 기능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실무에서 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닉스는 동 교육관 운영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과를 실질적인 기술 교육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코닝,  
2006 구미 자원봉사단 발대**



삼성코닝 구미자원봉사센터는 3월 22일 2006년 봉사리더 임명식 및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20여명의 봉사팀 리더 임명식에 이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지난 11년간 활발하게 꾸려온 봉사단 활동을 되짚어보고, 봉사처와 임직원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봉사단장 박헌구 전무는 지역단체의 전문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하면서, "리더는 봉사 프로그램의 내용과 지속성에, 간부는 임직원이 재밌고 보람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임원은 전략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방안에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실행하자"는 각오를 밝혔다.

삼성코닝 구미사업장은 금년도 중점 봉사 프로그램을 '소년가장 및 독거노인 30세대와의 결연활동'에 두는 등 사업장 전임직원과 주부봉사단이 함께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진정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랜텍,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완성품 사업에 진출**



배터리 전문업체인 이랜텍은 3월 27일 서울 조선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멀티미디어 사업으로 매출 5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세용 이랜텍 사장은 지난해 이화산업의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사업부를 인수한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4월 내비게이터, 5월 지상파 DMB 일체형 PMP, 휴대인터넷(와이브로) PMP를 올 하반기 잇따라 출시해 멀티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용 사장은 "안정된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완성품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처럼 브랜드와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갖춘 회사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휴대폰 배터리를 공급해 지난해 매출 약 1,900억원, 당기순이익 110억원을 달성하고 또 지상파 DMB 사업자 유원미디어의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이랜텍은 회사의 핵심 노하우를 융합해 멀티미디어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강화를 위해 신규 인수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